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8월 23일**

언약 300% 사65:17-25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것이 부활 메시지 4개입니다. 마28:16-20, 막16:15-20, 요21:15=18, 행1:8이 그것입니다. 이 4가지 주님의 명령을 3단어로 요약한 것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은 전 세계 나라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행1:8 땅 끝에서 나왔고 치유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나왔으며 서밋은 요21장의 후대와 마28장의 제자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 237 치유 서밋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단어가 3가지 뜰이며 3가지 뜰은 본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거기서 하는 모든 의식은 하나도 빠짐 없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사상을 담은 것이 성전의 뜰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이방인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지만 뜰은 이방인들에게도 개방되었으며 또 뜰에는 누구든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가 와서 기도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뜰에는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아이들의 뜰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실행해야 할 일이 금토일 문화 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금토일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반면에 세상의 네피림 문화는 금토일에 다 일어납니다.언약이 사라지고 세상 문화가 살아난 시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정신병과 중독의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명상으로는 결국 문제를 더 심하게 할 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대, 깊은 기도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전의 3뜰 사상과 약속 그리고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가 우리가 잡을 3시대의 언약입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1. 언약 300%

1) 300% 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인정하고 그대로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100%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장성 100% 입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성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시스템 100%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2) 이 3가지에서 300%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 원리는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모세는 젖먹이 나이 때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로 복음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3) 이 전문성이 준비된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모세는 광야의 모든 환경과 사람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이 아니었으면 전부 다 거기서 죽었어야 할 정도로 모세는 현장성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잡은 언약의 현장성은 100%라는 단어로는 그 표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제자를 붙여 주시므로 지속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300%의 인생을 모세는 살았던 것입니다.
4) 모세 만이 아니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내용을 전부 다 외우고 있었던, 언약에 대한 지식이 100%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 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뚜껑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뚜껑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 주셨습니다.

5) 이렇게 하여 바울은 복음 언약 100%가 되었고 그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였는데 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었다는 증거였고 이 복음으로 기적을 보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도 그 현장성이 100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 그리고 그에게는 지속할 시스템 제자 부분에서도 독보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으며 결국 그의 제자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300%의 인생이 바울이었습니다.

7) 이런 언약 300%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써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세상 끝 날에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읽어 보면 금방 다가올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표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8) 더 더욱 300% 언약의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눈 열림으로 그들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세계였을 것입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도록 할 것이며

9) 20절 날 수가 차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없을 것이며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22절 그들이 건축한 곳에는 타인이 살지 못하고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와 같게 할 것이요 23절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며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0)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먹고 살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대단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때 뿐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매일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고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도 살 수 있을 것인가.

11) 내가 건축한 곳에는 타인이 절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심은 것은 타인은 절대로 먹지 못하고 나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가 무엇이든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응답을 하시고 내가 기도를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 들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12)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사는 천지 개벽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와서 내게 절을 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노예가 총리가 되고 포로가 황제의 지도자가 되는 황제의 인생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13) 모세 같은 300%의 영적 시스템이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 300%의 인생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복할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 언약을 꼭 집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핵심 포인트를 꿰뚫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환경과 사람과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언약 한 가지로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도 한 가지 답도 한 가지 -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언약 300%. 바울은 이 언약의 증인이고 지금도 그는 그 언약 300%의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